불교단체 · 조직 전환기…각 종단 변화예고

2022년 주목할 불교계 키워드

〈A1면에서 이어짐〉

한일불교문화교류협회는 올 6월 한일불교교류 40년에 준하는 '제40차 교류대회'를 김제 금산사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교류대회는 '세계평화기원법회' '강제징용희생자 위령재' 등 전쟁의 아픔을 보듬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양국 불교교류 40년을 되짚는 사진전 등으로 대중과 만난다. 이에 앞서 협회는 이사장에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을 인준하고, 올 한해 교류대회를 시작으로 양국 우호를 다지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함께 일본에 잠들어 있는 강제동원희생자 유골을 한국으로 봉환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골반환이 성사될 경우 양국간 정치 · 사회적 행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대중화 · 세계화를 견인해 온 템플스테이도 올해 운영된 지 20주년을 맞았다. 이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선포할 예정이다. 2월경 20주년 기념식을 시작으로 8월에는 20주년 성과를 담은 다큐멘터리와 홍보영상 제작, 사진전(11월)은 물론 템플스테이의 발전가능성 등을 논의하는 국회세미나(11월)에 이어 새롭게 거듭나는 템플스테이 브랜드 선포식도 예정돼 있다. 이를 통해 템플스테이를 비롯한 불교문화체험 사업의 양적 질적 가치를 조명하고, 나아가 불교적 미래 가치를 표방한 경영 방침 및 템플스테이 · 사찰음식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비구니스님들의 정신적 요람,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도 개관 20주년을 맞았다.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한해 그동안 노후화된 회관 곳곳을 보수하기 위한 불사를 이어왔으며, 공양간 천장 누수공사를 시작으로 지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 시민선방과 불교대학 강의실 등을 새롭게 갖췄다. 이를 토대로 개관 20주년을 맞는 올해, 비구니 원로 스님들을 모시고 기념법회를 준비하는 동시에 법룡사를 비구니 스님들과 불자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법포교활동의 구심점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준비 중이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도 출범 10주년을 맞는다. 우리사회 각처에서 노동과 인권, 생명을 위해 활동해 온 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1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보다 발전되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발전하기 위한 변곡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1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토론회나 세미나를 통한 열린 토론의 장을 준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밖에도 불교스카우트연맹이 창립 20주년을 맞아 기념백서를 준비 중이며 전주룸비니불교학생회도 창립 5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 성과에 기반을 둔 새로운 비전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변화 조계종은 종단 최고어른이자 법의 상징인 종정, 행정 수반인 총무원장, 입법기관인 중앙종회의원 모두가 새롭게 교체되는 변화를 맞는다. 3월 조계종 성파 스님 추대 법회를 시작으로 10월 조계종 36 · 37대 총무원장 이취임법회가, 11월 9일 제18대 중앙종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된다. 정신적 지도자와 행정 · 입법기관의 일대 변화는 종단 안팎의 새 바람을 예고하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 취임 후 제36대 집행부의 원력사업인 백만원력 결집불사도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드러낸다. 광제사 대웅전 건립불사가 4월 종료되며 세종시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불사도 6월 회향을 앞두고 있다. 굵직굵직한 불사들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한국불교 백년대계를 발원하는 불자들의 염원도 환희로 이어질 전망이다.

태고종은 올해 사회복지사업의 본격적인 재개에 돌입한다. 그동안 민간차원으로 운영됐던 사회복지법인 대산복지재단을 다시 종단의 품으로 되돌린 데 따른 변화다. 대산복지재단은 올해부터 사회복지법인 한국불교태고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호명, 태고종 총무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종단 차원의 대사회활동의 핵심적인 토대로 안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태고종은 올해 종단 종전과 의식집을 새롭게 편찬하고, 태고문화전승연구소를 설립하는 한편 동방불교대학 개교 40주년을 맞아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친다.

천태종도 올해 새로운 총무원장이 임명될 예정으로, 변화가 감지된다. 종단 절차에 따라 종정스님이 지명한 후 종회인준을 거쳐 최종 임명되는 방식으로, 올 4월경 선출절차가 마무리된 후 새 총무원장이 취임할 전망이다.

임인년 불교총지종의 변화도 기대된다. 창종 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는 법회를 4월경 봉행하고 백서 발간과 종헌종법 개정, 사원 재정비 등 미래 100년을 기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前통리원장 인선정사에 이어 새롭게 취임한 통리원장 우인 정사 체제에서 총지종 도약을 위한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된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전승 위기 '땅설법' 한시름 놨다

문화재청 공모사업 선정
미래무형유산 사업 연계

전승 위기에 있던 삼척 안정사 땅설법의 보존에 청신호가 켜졌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미래무형유산 발굴을 위한 국민공모 사업에 '땅설법'을 선정했다"고 구랍 21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국민 선호도가 높은 무형유산을 지역의 대표 문화자원으로 육성하고자 마련한 공모전으로, 올해 8~10월 지원 받은 110건의 무형유산 가운데 역사 · 학술 ·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평가되는 종목 15건을 선정했다.

삼척 안정사의 땅설법은 현재까지 전승되는 동아시아 유일의 속강으로 비교적 최근인 2018년 학계에 알려져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불교 인물의 일대기를 강(講)과 창(唱)으로 전달하면서, 때론 그림자극, 인형극, 가면극, 역할극 등 다양한 민속 연희들을 동원한다. 이를 통해 불자들의 교리학습과 아울러 일반인들 대상의 포교를 목적으로 한다.

땅설법의 구비경전(레퍼토리)은 본전 △석가모니 일대기 △선재동자 구법기 △목련존자 일대기 △신중신 일대기 등 5종과 별전 △만석중증도기 △안락국태자경 △태자수대나경 △심청효행록 △삼한세존일대기 △위제희부인만원연기 등 6종이 있다. 본전 · 별전 모두 대부분 부처님오신날, 백중, 수륙재 등서 설행됐으며, 불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삼척 안정사 다여 스님만이 한국에서 유일한 땅설법 전승자이다. 다여 스님은 이북 지역서 활동했던 강통(講統, 땅설법 법맥 대표) 무명 스님(1910~1988)에게 땅설법을 사사했으며, 무명 스님이 입적하기 전에 전법패와 전법게를 받았다.

이 같은 1인 전승 상황은 땅설법 보존 위기를 의미하기도 한다. 땅설법을 연행하는 속강승(俗講僧)의 지속성이 담보되지 않아서다. 땅설법 보존을 위해서는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공모 선정으로 땅설법의 보존에는 청신호가 켜졌다. 해당 지자체가 지역 대표 무형유산으로 육성하고자 할 경우 2023년부터는 문화재청의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사업과도 연계돼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다.

신성민 기자

'佛石' 조성된 유일 불상 보물 지정

문화재청 '울산 신흥사 아미타여래좌상' 등 7건 지정

'불석(佛石)'이라는 광물로 조성된 유일한 불상인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한 고려 · 조선시대 전적과 불교조각, 괘불도 등 7건을 보물로 지정했다"고 구랍 22일 밝혔다.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불교문화재는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를 비롯해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 △대구 용문사 소장 '대승기신론소 권하' △법장사 소장 '초조본 아비달마대비바사론 권175' △강릉 보현사 목조문수보살좌상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 등이다.

보물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신흥사 대웅전에 봉안된 대세지 · 관음보살좌상으로 구성된 아미타삼존상 중 본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재질은 '불석'으로 해당 광물로 조성된 불상은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이 유일하다. 조성한 조각승은 17세기 전반 전국에 걸쳐 활동한 조각승 영색이다.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

문화재청은 "'울산 신흥사 석조아미타여래좌상'은 1649년이라는 명확한 제작 시기, 영색이라는 수조각승, 아미타불상이라는 존명 등을 바탕으로 17세기 중엽경 불상 조성의 기준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료의 산지(山地)와 이운 과정을 발원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 · 예술적 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강진 무위사 감역교지'는 1457년(세조 3) 음력 8월 10일 국왕이 강진 무위사의 잡역(雜役)을 면제하도록 명령을 내린 국가의 공식적인 교지 문서다. 무위사 감역고지에는 세조의 서명인 어압(御押, 임금의 사인)과 어보(御寶)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가장 명확하게 남아 있어 조선 전기 국왕 발급 문서양식 연구를 위한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대구 용문사 소장 '대승기신론소 권하'는 당나라 승려 법장(643~712)이 저술한 총 3권을 저본으로 하여 1461년(세조 7년)에 간경도감에서 만든 목판으로 찍은 불경 중 권하(卷下)에 해당하는 1책(33장)이다.

조선시대에 간행된 법장의 〈대승기신론소〉는 1457년(세조 3)년에 간행된 초주갑인자본(初鑄甲寅字本, 갑인자로 찍은 금속활자본)과 1528년(중종 23년), 1572년(선조 5년)에 중간(重刊)된 목판본 등이 있으나, 1461년에 간행된 사례로는 용문사 소장본이 유일하다.

'서울 흥천사 비로자나불 삼신괘불도'는 1832년(순조 32년)에 수화승 화담신선을 비롯해 총 17명의 화승이 조성한 왕실 발원 불화다. 화담신선은 1790년 용주사 불화를 주도했던 상겸, 민관, 연흥 등 서울경기 지역 화원들의 화풍을 계승한 인물이다.

신성민 기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북녘 이야기

민추본, 공존 · 상생 위한 북한 가이드북 제작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월우, 이하 민추본)가 공존 · 상생 · 합심을 위한 북한 가이드 북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북녘 이야기'(이하 '알쓸북') 소책자를 발간했다.〈사진〉



민추본은 구랍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북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교류와 협력 대상으로서의 북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북한 바로알기 소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전체 5장, 79페이지로 구성된 '알쓸북'은 북한 가이드북이라는 제목답게 다양한 북한 정보를 담고 있다. 다양한 정보 및 북한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내용과 사진 등으로 구성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했다.

1장은 '어서와, 북한은 처음이지?'에는 북한의 기본정보와 국가 상징, 주요 기념일, 정치체제, 교육제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장은 '지도로 보는 북한'으로 북한의 행정구역과 특구, 철도와 도로 등을 지도로 보여주고 있다. 3장 '북한 핫 플레이스, 어디까지 가볼까?'는 최근 북한에서 가장 많이 변화한 지역인 삼지연시, 양덕온천, 평양 려명거리,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와 북한 수도인 평양의 명소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장 '북녘 사람들의 맛, 멋, 삶'에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5장은 북한의 종교와 불교, 북한의 주요사찰을 소개하는 장으로 구성됐다.

'알쓸북'은 민추본 정책기획위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편집기획회의를 거쳐 내용을 구성했다. 동국대 북한학과 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한 오삼언 민추본 회원과 민추본 조미애 행정관이 함께 글을 쓰고 사진을 취합해 완성했다. 감수는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에서 진행했다. 02)720-0531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불기2566(2022) 謹賀新年 임인년

백만원력 결집불사
위례신도시
상월선원 신축불사

아홉스님의 석 달 동안의 동안거 상월선원 천막결사 정신을 계승하여 한국불교 중흥과 나라와 국민의 평안, 나아가 온 인류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한 상월선원 신축불사를 추진합니다. 봉은사의 위례 신도시 상월선원 건립불사는 상월결사의 정신을 담고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발원으로 시작된 백만원력 결집불사와 함께 우리 불자 한명 한명의 원력을 모아 한국불교의 내일을 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상월선원 신축불사 모연에 불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 부탁드립니다.

상월선원 전체 불사 모연



상월선원 대웅전 불사 모연





전체 불사 : 1인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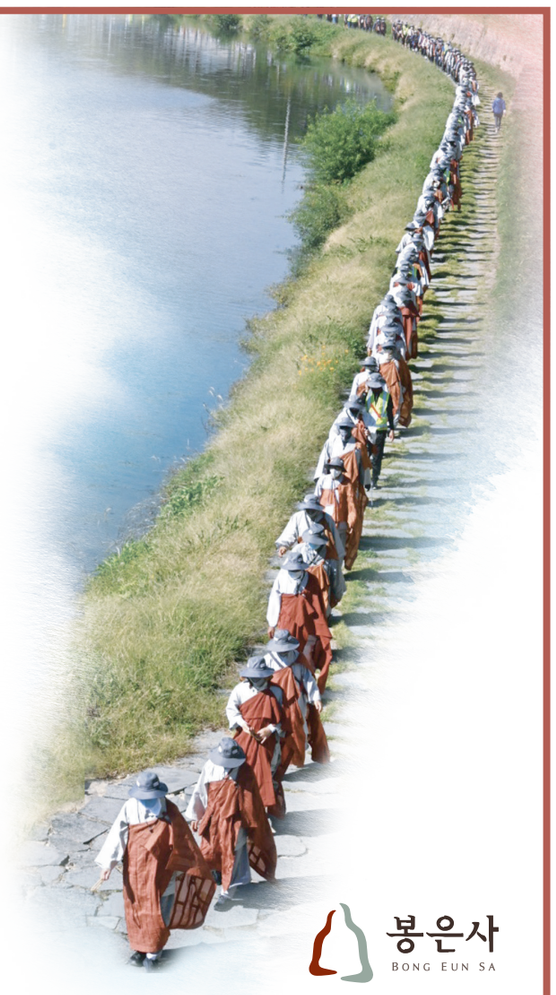
후원계좌 신한은행 100-035-099939
농 협 301-0299-2142-01
국민은행 401301-04-080435
예 금 주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문의/안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
(02)3218-4811 / 4837

홈페이지 http://www.bongeunsa.org

구 분	수 량	동참금
상량보	1개	2억원
대들보	18개	1억원(개당)
기둥	18개	5천만원(개당)
도리	77개	2천만원(개당)
주춧돌	18개	5백만원(개당)
서까래	236개	1백만원(개당)
기타		십시일반

구 분	내 용	가족모연(금판)		개인모연(은판)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불상	삼존불(석가모니불) 및 좌대	5명	3억원	200명	100만원	500명	10만원
	삼존불(약사여래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삼존불(아미타불) 및 좌대	5명	2억원	200명		500명	
	관세음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지장보살 및 좌대	5명	1억원	200명		500명	
구 분	내 용	가족모연		개인모연		십시일반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동참자	동참금
탱화	후불탱화 삼세불도	10명	1억원	200명	50만원	200명	10만원
	신중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감로탱화	10명	5천만원	200명		200명	



봉은사 BONG EUN SA
사부대중일동